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2일(목) 총 6매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 여성지원팀장 임하수 ☎440-2861 • 담당자 고상선 ☎440-2862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여성친화 기업 어디?

- 인천시, 여성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10개 기업 선정 -
- 2023년까지 30개 기업 선정...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만든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2일, 20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주식회사 농우 ▲주식회사 도레미파 ▲(주)미디어유큐프 ▲(주)미라지식품 ▲소니메디 ▲(주)세인아이엔디 ▲주식회사 신우종합상사 ▲주식회사 엑스파워네트웍스 ▲웰펍 주식회사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등 제조업체부터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체와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인천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10개의 여성친화 기업을 선정한 인천시는 2023

년까지 총 30개 여성 친화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과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원과 채용장려금 1인당 100만원(기업당 최대 2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금고인 신한은행을 통한 대출상담 지원(수수료 면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한다.

여성친화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나?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인천시에 소재한 종사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는 현장실사를 통해 4개 분야 23개 항목을 꼼꼼히 따져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가려낸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과 임원 비율,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여성고용 창출, 남성평균 급여대비 여성평균 급여 비율 등 여성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간 선택제 운영 등 일·생활 균형 지원 여부를 점검한다. 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과 복리후생 운영 여부도 고려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3.2%), 결혼(27.4%), 임신·출산

(22.1%) 순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여성 개인에게도, 노동인재 상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인천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의 일 경험 및 고용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기업 선정 육성 사업과 함께 새일여성인턴 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인턴채용지원금 240만원(매달 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업체 및 인턴 희망자는 새일센터 홈페이지(seil.moge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구직자들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22일 인천시청 애플광장에서 개최한 ‘2022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에는 1,000여명의 여성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광고 홍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33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저 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20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현황

※ 관련 사진은 14:00분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기업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회사소개
주식회사 농우 (제조업외)	박화식 (서구)	▶전체근로자수 12명, 여성 5명 2009년 농우식품 설립과 함께 시작한 농우는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며 탕, 소스 등의 제품을 개발·제조해 온 전문회사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부응해 가정식 브랜드 바르담, 식음료 브랜드 더블드롭스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청결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식회사 도레미파 (정보통신업외)	김아름 (미추홀구)	▶전체근로자수 6명, 여성 4명 무역 행정 전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기획 개발하는 데이터 기업으로 2020년 7월에 설립됐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단순화, 최적화, 전산화 해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동 업종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미디어유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외)	이지선 (연수구)	▶전체근로자수 17명, 여성 13명 스타트업 육성 전문 컨설팅 회사다. 2007년 '소셜 미디어'의 태동기에 탄생한 미디어유포는 블로그코리아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앞당겼으며 2020년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로 더 많은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미라지식품 (도소매업외)	김준택,기정희 (서구)	▶전체근로자수 19명, 여성 7명 가정 간편식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2003년 문을 열었다. 2016년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해 오면서 인천의 대표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다. 미라지식품이 운영, 관리하는 '남가네 설악추어탕'은 전국 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9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소니메디 (제조업외)	이정복 (남동구)	▶전체근로자수 19명, 여성 10명 2008년 시작한 소니메디는 자체 연구 개발 및 체계적인 제조 및 생산라인을 구축해 OEM [제조·생산] 및 ODM [신소재 및 제형 개발] OBM [브랜드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다.

기업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회사소개
(주)세인아이엔디 (제조업)	오재영,오원현 (남동구)	▶전체근로자수 44명, 여성 9명 자동차·전자·통신 부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와셔제품 생산 보급 기업으로 1988년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해 2003년 인천 남동공단 공장부지 매입 후 2013, 2016년 공장 확장 증축 및 설비를 증설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식회사 신우종합상사 (제조업외)	김재원,강숙자 (남동구)	▶전체근로자수 6명, 여성 3명 문구, 사무용품, 주문 제작, 제본,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회사다. 1993년 창립 이후 남동공단내의 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주식회사 엑스파워 네트웍스 (도소매업외)	최광수 (부평구)	▶전체근로자수 30명, 여성 16명 모바일 판매, 웹 제작 및 IT 개발, 네트워크 공사 등을 하는 기업으로 2008년 설립됐다. 문체부 주관 독서문화 우수기업, 영광과 신용보증기금의 최고일자리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웹팩 주식회사 (제조업외)	권영익,김종민 (연수구)	▶전체근로자수 17명, 여성 10명 2018년 설립된 의약품 및 화장품 펩타이드 소재 제조 및 개발 전문회사다. 생체친화성 소재인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기능적 최소 단위로서 우수한 효능과 낮은 부작용으로 의약품으로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서비스업외)	정윤호 (남동구)	▶전체근로자수 17명, 여성 10명 청년기획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법인으로 2013년 설립됐다. 문화예술 기획사업, 교육사업, 공간거점 제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